

#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Diaspora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장 우 권(Woo-Kwon Chang)\*

### < 목 차 >

I. 서론	관리
II. 이론적 배경	1. 정보자원 형성과 발전
1. 디아스포라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2. 정보자원관리
2. 정보자원과 아카이브	3. 정보자원과 아카이브
3.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과 아카이브	IV. 결론 및 제언
III.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 형성과	

### 초 록

이 연구는 문헌정보와 아카이브적 측면에서 도서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디아스포라와 정보자원 관련 문헌적 고찰과 재외한인들의 이동루트와 정착 그리고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 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자발적 이동보다는 정치와 경제적 측면에서 타인에 의한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이주 현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헌정보를 생산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도서관, 신문사, 출판사, 기록보존소 등지에서 정보자원관리와 아카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보자원에 대한 가치와 역량을 나타내고 진일보한 디아스포라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관리, 문헌정보, 아카이브,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관리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a development plan on the Korean diaspora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n a viewpoint document information and archives. This study consists of two aspects : a document investigation based on Korean diaspora and information resource and in a practical examine based on a spot of life, settlement, and movement of overseas. A lot of Korea Diaspora have immigrated to Japan, China and Russia mostly with other people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ominant cause. They are produced a various of document information and was formed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nd archives in a library, a newspaper office and a publishing compan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looked forward to help to R&D of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n values and competencies for Korean diaspora.

Keywords: Korean diaspora,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document information, archive, Korean diaspora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 접수일: 2012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1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 I. 서론

인류의 역사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민족이동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타민족의 이동과 정착으로 확대되면서 민족이산(또는 민족분산)이라는 뜻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즉 디아스포라는 자의든, 타의에 의하든 이주로 인한 정착에서 출발하고 정착지의 삶의 공간에서 나타난 일상의 결과물인 정보자원이 생성되고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보자원은 문자에 의한 생성과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연속적인 지적 정보자원의 전달과 이용, 새로운 정보자원의 창조과정을 통해서 현대의 문명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정보자원은 그 생성과 변화가 국가 구성원의 존립방식과 그 나라의 사회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자원은 글로벌 경쟁의 시대, 민족과 국가간의 글로벌적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협력과 이윤추구의 핵심적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보자원의 관리는 정보의 창출, 축적, 유통, 공유·활용 등으로 구성되는 지적 정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국가의 비전이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보존 및 내용적, 이용적 가치가 있는 공사부문의 정보를 생성 및 선정한 다음, 다양한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구성원이 용이하게 활용, 재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 정보자원관리의 목표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지적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혁신하는데 있다.<sup>1)</sup> 이와 같이 정보자원의 관리는 정보자원의 생산 및 수집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일찍이 형성되어 왔다.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 등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따라 많은 이주와 정착으로 점철되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한민족 이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 중엽부터이며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이주되었다. 또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곳곳마다 많은 정보자원이 생성되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주의 세대가 많아지고 이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환경의 변화로 수많은 정보자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와 아카이브적 측면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보자원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디아스포라와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동루트와 정착 그리고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 조사(현지 방문과 관련자 인터뷰, 문헌조사와 탐색 등)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중국, 러시아, 중

1) 한국전산원,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로드맵 수립(2001. 11).

양아시아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 생산과 유통, 그리고 관리기관인 출판사, 신문사, 방송국, 도서관, 당안관, 기록관, 문서관과 매체별로 한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디아스포라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 1)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의 어원(語源)은 그리스어로 분산(分散) 또는 이산(離散)의 의미<sup>2)</sup>이며, 그 개념은 팔레스타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대문자 'Diaspora'이다. 소문자 diaspora는 민족 집단 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 의미와 속성, 특징 등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그 특징도 협의와 광의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사프란(Safran 1991)이 주장한 것으로 <표 1>과 같이 여섯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디아스포라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디아스포라의 특징

협의적 <sup>4)</sup>	광의적 <sup>5)</sup>
① 특정한 기원지로부터 외국의 주변적인 장소로 이동 ② 모국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 ③ 거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희망의 포기과 그로 인한 거주국 사회에서의 소외와 격리 ④ 조상의 모국을 후손들이 결국 회귀할 진정하고 이상적인 땅으로 보는 견해 ⑤ 모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헌신 ⑥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① 한 기원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한 것 ② 정치적, 경제적, 기타 압박요인에 의하여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난 것 ③ 고유한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④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해 애착과 연대감을 갖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노력하는 것 ⑤ 모국과의 유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2) '씨를 뿌리다(to scatter)'라는 의미의 'spora'와 여러 방향으로, 경유(through)의 의미를 가진 'dia'가 합친 그리스어 'diaspeirein'가 어원. ; 이미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예술·사랑·국가,"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2010), p.99.  
 3) 정성호,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한국인구학, 제37권, 제3호(2008), pp.107-108.  
 4)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s*, Vol.1, No.1(1991), pp.83-99.;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제4호(2003), pp.102-10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디아스포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박해도피형(迫害逃避型, Victim or Refugee), 식민지이주형(植民地移住型, Imperial or Colonial), 노동이동형(勞動移動型, Labor or Service), 상업적이주형(商業的 移住型, Trade or Commerce), 다인종문화형(多人種文化型, Cultural or Hybrid).<sup>6)</sup>

2) 코리안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1863년 연해주지역의 고려인 농업이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가는 농업이민, 외지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이민, 잃어버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밖으로 간 망명이민, 노동계약에 의하여 밖으로 간 계약이민, 사업진작을 위하여 밖으로 간 사업이민 또는 투자이민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sup>7)</sup>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그 유형에 있어서 구디아스포라와 신디아스포라로 구분되어 시기, 지역에 따라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sup>8)</sup> 구디아스포라는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엽에 이주자들로 기근, 압제, 식민지 통치와 같은 모국의 배출요인에 의해 이주하게 되었고, 계층배경은 주로 농민, 하층계급이었으며 거주국에서의 정향성은 정착보다는 일시체류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신디아스포라는 1960년대 이후 이주자들로 모국의 배출요인 못지않게 거주국의 흡입요인(높은 생활수준과 교육기회)에 강하게 끌렸으며, 계층배경은 도시출신의 고학력,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거주국에서의 정향성은 처음부터 영구정착을 목표로 하였다(표 3).<sup>9)</sup>

<표 2>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유형

	구디아스포라	신디아스포라
이주 시기	1860-1945년	1960년 이후
이주 지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미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이주 유형	농업이민, 노동이민, 망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고려인)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는 농업이민(1860-1905년), 망명이민(1905-1937년), 강제이주(1937-1938년), 소연방해체 이후시기(1991- )로 구분하여 나누기도 한다.<sup>10)</sup>

5) 정성호, 전개서, p.108.; 윤인진, 전개서, pp.103-104.

6) • 박해도피형: 유대인, 아프리카인,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아일랜드인, 일제식민지시기(1910-1945) 한국인, 중d아시아 강제이주(1937) 고려인(한국인), • 식민지이주형: 고대 그리스인, 영국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 노동이동형: 인도계약노동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 상업적이주형: 베네치아인, 레바논인, 중국인, 한국인, • 다인종문화형: 해외거주 카리브인. : C. Fred Bergsten, 최인범 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세계경제(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서울 : 국제경제연구소, 2003), pp.26-31.

7) 정성호, 전개서, p.109.

8) 상계서, p.110.

9) 윤인진, 전개서, pp.105-106.

10)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서울 : 집문당, 1998), p.43.

1863년 이후 연해주지역에 이주한 고려인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약 1,800명). 1905-1937년 이시기에는 정치적 동기(독립운동)에 의한 망명이민이 주로 나타났다. 1937년에 극동지방에는 160여개 이상의 농촌과 지역 소비에트에 거주하였다. 1937년에는 스탈린<sup>11)</sup>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주 이주되었다. 1991년 소련연방해체 이후 현재 고려인이 약 18만명 거주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할린 현지에 잔유(殘留)된 조선인은 약 2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sup>12)</sup>

〈표 3〉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 배경요인, 이주자 특징, 거주국의 민족정책

구분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주 시기	1단계	1863-1904	1863-1910	1910 이전	1903-1905	1967 이전
	2단계	1905-1937	1910-1930	1910-1937	1906-1945	1967 이후
	3단계	1937-1945	1930-1945	1937-1945	1945-1964	
	4단계	1945-1991	1945-1992	1945-1989	1965년 이후	
	5단계	1991년 이후	1992년 이후	1989년 이후		
세대구성	3, 4세가 주류	3, 4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1세가 주류	1세가 주류	
출신지역	현재의 북한지역(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전: 현재의 북한지역(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후: 한반도 내 지역으로 다양화	현재의 남한지역(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대부분 남한출신과 소수의 북한 실향민	대부분 남한 출신과 소수의 실향민	
이주동기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노동이민/1937-1945년에는 강제 징집)	주로 경제적 이유(초기의 노동이민과 후기의 중산층 이민)/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과 사회복지)도 작용	
계층배경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 ○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농민 ○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 ○체류자와 강제 이주자의 성격이 강했음	○초기: 농민, 노동자 -중기: 국제결혼 여성, 전쟁고아, 유학생 -후기: 고학력, 중산층 ○초기에는 체류자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거주국의 민족정책	동화주의	다원주의(민족자치 허용)	동화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다문화주의)	
호칭	고려사람	조선족	재인(在田)한인	코리안-아메리칸	캐나다 한인	

11) 스탈린 시대에는 한인들 이외에도 민족의 강제 이주는 흔한 일이었다. 불가강 유역의 독일인들, 크림의 타타르인들, 체첸인들, 칼미크인들, 발카르인들, 카라차이인들, 인구시인들 폴란드인, 투르키-메스호인들 등도 강제 이주라는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들의 죄목은 훗날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민족 전체가 조국에의 배반이었다. 그 결과 1940년대 '국가적 작전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주된 사람들은 301만 1,108명이었으며,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도 포함하면 그 수는 322만 6,340명에 달한다(Φ 1989, 135). 그렇지만 이들 민족은 모두 2차 대전 기간에 강제 이주 당한 경우였고, 그 이전에 민족전체가 집단이주 당한 경우는 연해주의 한인들이 유일하였다.: Бугай Н. Ф. 1989. К вопросу о депортации народов в 30-40-х годах //История СССР, No. 6, 1989, С. 135; Правда, 24 ноября. 12) 모스크바(97,500), 상트페테르부르크(18,000), 극동지방(58,000) 등(외교통상부, 2011 : 시민권자 중심).

중앙아시아지역에는 1926년부터 1931년까지 부분적으로 한인이주가 이루어졌으며, 1937년 스탈린에 의해 단행된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였다.<sup>13)</sup> 현재 중앙아시아(독립국가연합)에는 약 32만명의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sup>14)</sup> 고려인의 대부분은 1937년 강제 이주된 이민 1세, 2세의 후손들이다.

중국으로의 이민은 중국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청 태조의 발상지로 보아 봉금령을 내린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서침으로 더 이상 봉금령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1886년 봉금령이 해제되고 두만강 이북의 화룡지역이 한민족의 독점개간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조선인의 이민을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선인이 북간도(현재 연변)로 이주하게 된다.<sup>15)</sup>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건립되었으며, 동북 3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2000년 약 2백만 명에 달했던 것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 중국내의 도시로, 한국으로, 일본 등으로 진출하면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동북 3성에는 약 180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sup>16)</sup>

이외지역 일본과 신디아스포라 지역은 이 글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대상에서 제한하였다.

## 2. 정보자원과 아카이브

### 1) 정보자원

정보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고, 세계 어느 곳이든 넘나드는 코스모스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보는 글로벌 정보 사회에 대한 전략적 자원으로써 이제 국가발전과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종이용자는 형식, 위치, 또는 매체에 관계없이 통합된 정보를 원하고, 정보는 이것저것 모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실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은 다양한 형태와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 관찰과 사고(思考)의 기록이며, 정보원이 될 수 있다.<sup>17)</sup>

정보원은 정보생산의 근원지로서 정보생산자를 의미하며, 생산된 정보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

13) 총 36,442가구 171,781명이 원동을 떠나 강제 이송됨(20,170가구 95,256명은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는 16,272가구 76,525명이 이송) : 반병률, “강제이주 이전의 한인사회의 동향, 1923-1937”, 러시아의 변화와 한러관계, 한국슬라브학회 제11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11월 14-15일(서울 : 경희대학교, 1997), p.10.; 장우권, 사공복회,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글정보자원관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p.293.

14)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우크라이나 13,000명, 키르기스스탄, 17,000명, 타지키스탄 16,000명 등

15) 중국 이민의 수는 대략 1904년 5만명, 1907년 7만명, 1910년에는 10만명, 1921년에는 45만 명으로, 그리고 1940년에는 114만 명으로 증가했다. : 사공복회, 장우권, “제중조선족 정보자원 생산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1호(2004.3), pp.173-201.

16) 2000년(연변조선족자치부 1, 장백현조선족자치현 1, 자치향(鄉) 및 진(陳) 42, 촌(村) 2,000여개). (외교통상부, 2011).

17) 장우권, “디지털정보자원관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2012. 11), p.12.

주한다.<sup>18)</sup> 정보원은 어떤 식으로든 조직과 수용되는 경우 정보자원이 되며, 재사용 할 수 있다. 정보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된다: 전달자(물리적 시설: 정보를 처리하고 배포, 저장, 수집에 사용)와 콘텐츠(정보원과 구성요소).<sup>19)</sup> 정보자원은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여 기록한 정보와 자원이다. 광의적으로는 문자와 기호 등에 의해서 전달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기록정보 가운데에서도 각 학문분야에서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의미한다.<sup>20)</sup> 즉 정보의 공급원으로부터 이용되는 각종 자료군이다.<sup>21)</sup>

정보자원은 도서관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이며, 도서관의 서비스의 품질은 크게는 정보자원 기반의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주요 정보자원은 책과 인쇄 형태의 저널 등이며, 오늘날 정보자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오디오 테이프, 필름 및 디지털 양식(멀티미디어 포함) 등 다양한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자원은 디지털도서관의 주요한 핵심요소이다. 여기에는 인쇄매체, 콤팩트디스크, DVD 등의 오프라인 형식과 전자책, 전자저널, 웹자원 등의 온라인 형식으로서 이용자는 많은 정보자원을 온라인으로 접근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sup>22)</sup>

정보자원은 생산과 축적(수집과 조직)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확충하여 왔다. 이러한 연속적인 지적 정보자원의 전달과 이용, 새로운 정보자원의 창조과정(유통과정)을 통해서 발전적 정보순환이 이루어진다.<sup>23)</sup> 또한 정보자원관리는 정보와 그와 관련된 자원을 계획, 조직, 분배, 이용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다.<sup>24)</sup>

## 2) 아카이브

기록은 인간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입수한 데이터나 정보를 특정매체에 고정시킨 것이다. 인간은 기록을 통해서 기억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훗날에도 정확하게 그 활동을 복원하고 참조하며 증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즉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법적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이다.<sup>26)</sup> 또한 기록은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을 가진다.<sup>27)</sup>

18)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299.

19) 장우권, 전계서.

20) 사공복희, 장우권, "계중 조선족 정보자원 생산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1호(2004), p.179.

2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전계서, p.300.

22) 장우권, 전계서, pp.18-19.

23) 사공복희, 장우권, 전계서, 174.

24)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전계서, p.300.

25)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서울 : 아세아문화사, 2010), p.15.

26) ISO 1548901:2001, 3.15

27) 내용(contents)은 기록의 내실을 구성하는 문자 데이터, 기호, 숫자, 이미지, 소리, 그림, 기타 다른 정보이다. 구조(structure)는 기록의 물리적 특성, 내용의 내속편제를 의미한다. 맥락(context)은 기록의 생산, 접수, 저장 또는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폐기와 보존에 이르는 모든 과정<sup>28)</sup>에서 이 속성<sup>29)</sup>들이 훼손되지 않고 보장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즉 기록을 적법·적절하게 생산·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적 가치나 영구 보존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sup>30)</sup>

아카이브(보존기록, archives)는 역사적·정보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랫동안 보존해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산·입수한 기록으로서, 생산·입수된 직접적인 목적 이상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거나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 주는 데 있어 의미를 지닌 자료이며, 통상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고, 집합적 통제에 입각하여 유지된다.<sup>31)</sup> 또한 아카이브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 비도서형태의 기록물 자체를 뜻하며,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보존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sup>32)</sup>

### 3.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과 아카이브

디아스포라 정보자원은 이주와 정착지에서 생성되고 축적·이용되고 있는 기록된 정보자원으로서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도서매체, 영화, 필름, 레코드나 테이프 등의 비도서매체, 웹DB, 전자책, 전자저널 등의 디지털자료로 이루어진다. 또한 디아스포라 정보자원은 유·무형의 정보자원으로 구성된다. 유형의 디아스포라 정보자원은 그림(圖), 책, 신문, 지도, 마이크로필름, CD-ROM, DVD, 컴퓨터파일, 전자책, 전자저널, 웹사이트 등이며, 무형의 정보자원은 음악(노래, 소리, 춤), 연극, 영화 등이다. 디아스포라 아카이브는 이들의 정보자원을 역사적·정보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다.

디아스포라 정보자원의 생산흐름과 대중매체로서의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활용을 둘러싼 조직적·기능적 환경과 활동상의 정황을 의미한다.; 한국기록학회 편, 기록학용어사전(서울 : 역사비평사, 2008), p.48.

28) 기록의 생애주기(records lifecycle): 생산·입수·활용·처분(보존·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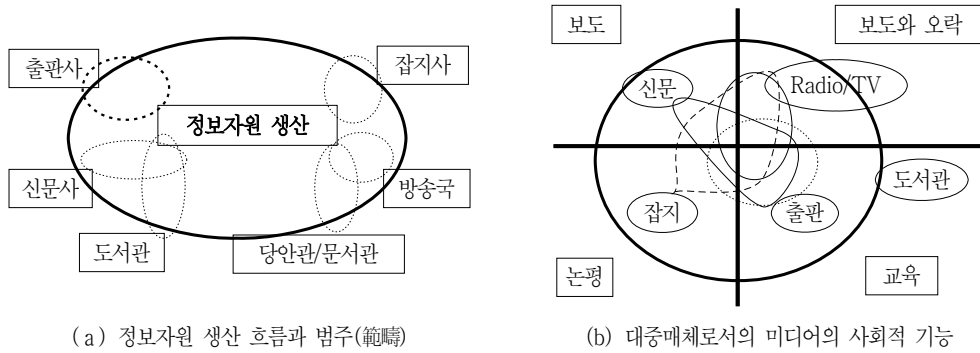
29)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이용가능성(usability)(ISO 15489-1:2001, 7.2)

30) 한국기록학회 편, 기록학용어사전(서울 : 역사비평사, 2008), p.50.

31) 상계서, pp.118-119.

32) 최정태, 기록학개론(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1), p.32.; 김영기 외, 문화시대의 디지털 아카이브(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p.15.





〈그림 1〉 디아스포라 정보자원 생산흐름과 기능<sup>33)</sup>

신문은 다양각색의 기사거리에 대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보도의 기능<sup>34)</sup>을 갖는다. TV와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은 보도, 오락, 논평, 교육기능 중에서 오락적 기능을 다른 어떤 매체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잡지는 학문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자원을 제공한다. 신문에 비해 문제제기나 상황을 심층 보도할 수 있으며,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설하는 논평기능이 강하다. 일반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에 비하여 즉시성과 항구성, 신속성과 심층성을 함께 지닌 유일한 매체이다<sup>35)</sup>. 출판은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내포한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출판은 특히 문화의 보호·전승 및 발전과 문화의 창조과정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로서 교육의 기능이 강하다.

### Ⅲ.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 형성과 관리

#### 1. 정보자원 형성과 발전

##### 1) 정체성과 한인 공동체

코리안 디아스포라(고려인, 조선족)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개인을 넘어 거주지 층을 중심으로 공동사회를 형성해왔다. 러시아 고려인 사회는 최초의 이민자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지역에 정착한 한인들은 140년 동안 수많은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한인공동체를 형성해왔다.

33) 이명규 외, 재외한인 문헌정보자원과 실제(서울 : 집문당, 2005), pp.57-58.

34) 뉴스보도기능(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달), 해설보도기능(해설을 위한 보도), 광고보도기능(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보도), 오락보도기능(대중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보도)

35) P. M. Sandman, D.M. Rubin, & D.B. Sachman, Media(N.J: Prentice-Hall Inc., 1972).: 사공복희, 장우권, 전계서, pp.195-196.

19세기 이후 약 70년 동안 고려인 1세대 이주민들은 민족공동체를 거점으로 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정보자원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단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한 것에 있지 않았고, 치열한 항일투쟁, 차별당하지 않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 한민족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늘날 러시아와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수많은 역사적 고난을 경험했던 세계한민족 중에서도 매우 비극적인 삶을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유라시아대륙에 흩어져 살았지만 닥쳐온 문제들 속에서 단련되었고, 시련을 통해 성장했다. 고려인공동체의 형성과 이주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보자원의 생성과 유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강제이주 초기의 민족정체성은 고려인에게는 정신적인 자부심이며 미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소련의 소수민족언어 말살정책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삶의 고통에서 사라지고 독특한 고려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들은 스스로 고려인이라고 존재규정을 한다는 면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내용과 기준을 통해 자신을 한민족으로 규정하는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들은 부모가 고려인이라는 사실, 즉 혈연에 큰 비중을 둔다. 이는 공통된 민족어를 상실하고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세대로부터 찾으려는 것으로 의식적,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따라서 이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그들에게 걸맞는 그들 고유의 합당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조선족은 민족적 정체성을 문화의 동질성<sup>38)</sup>과 민족의 중요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공통된 언어인 조선어가 존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민족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외에 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치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이 있었기에 중국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 수 있었다. 이것은 조국이 정신적 지주로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족의 정체성은 조선족이라는 민족성과 더불어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 중국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중국의 강토를 개척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으며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중문화 심리를 가진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조선족은 한반도에 있는 조선족과는 다른 이중문화를 지닌 중국민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중국속의 조선족이 당당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족의 정체성 측면에서

36) 김정현, 장우권, 김홍길, "러시아에서의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p.360.

37) 조화성, "중국과 구 소련의 소수민족정책과 재외한인의 민족정체성." ([http://www.korea.ac.kr/~politics/magazine/working\\_paper/natident.hwp](http://www.korea.ac.kr/~politics/magazine/working_paper/natident.hwp)).

38) 우리들의 삶 속에 전승되어 유지되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는 조선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매년 자치구, 시, 현별로 개최되는 축제 속에 나타나는 전통민요, 무용, 놀이, 음식문화 등은 조선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민족적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지원해야 한다.<sup>39)</sup>

## 2) 거주국의 언어와 한글

러시아 고려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농업이민)로 이주해 왔으며, 대부분 가난한 농민이었기 때문에 거주국인 러시아어 사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주 2기(1905-1937) 이후에는 정치적 동기로 지식인, 혁명가, 독립운동가 등이 이주(망명)함으로써 조선어 사용과 러시아어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더욱이 고려인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은 순한글, 러시아어, 병용(러시아어와 한글) 등으로 발행되었다. 강제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초기에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말로 된 신문을 발행하였으나 구소련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후 러시아와 구소련사회에 동화되어 공식적으로 우리말 사용이 사라졌으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부 지식인과 선각자들에 의해 계속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이와는 달리 중국조선족은 중국정부의 다원주에 입각한 민족자치주를 허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기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등에서도 민족어인 조선어를 계속 사용해 왔다.

## 3) 교육과 기관

고려인과 조선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1911년 12월에 결성된 항일 민족운동단체인 권업회(勸業會)는 창립목적에 교민의 실업을 권장하고 저축을 장려하고, 러시아 공민이 갖추어야 할 문명의 행동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 농상공업의 기획과 경영을 수행하고 회원의 정신적 욕구를 계발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독서실을 짓고, 독서회를 조직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행할 것을 결정한다.<sup>40)</sup> 이와 같이 1922년 10월까지 연해주를 중심으로 극동공화국에는 약 220개의 한인학교(한인사범학교,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고려한인사범학교 등)가 있었다. 1926-1927년도 블라디보스토크관구에는 농촌지역에 한인초등학교가 114개, 도시지역에는 5개가 있었다. 또한 문맹퇴치를 위해 고려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41)</sup> 그 결과 1930년대 연해주 고려인은 해외에 존재하는 어떤 그룹보다 높은 90% 이상의 문자해독률을 돌파했다.<sup>42)</sup>

39) 이명규, 장우권, “중국 조선족 한글정보자원 생산과 출판물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pp.405-406.

40) 러시아국동의 한인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문서와 자료, 블라디보스톡, 2001, p.184.

41) 1925년 한인마을에는 125개의 문맹퇴치조직이 만들어져 5,0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를 위해 성인을 위한 교과서인 ‘문맹퇴치’가 한글로 번역되어 제작되었다. 1929년에는 148개의 문맹퇴치 주민학교가 설치되어 1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 극동혁명위원회 한인위원회 회의록,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서고 17.

42)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소장자료, 문서고 1235, 목록 119, 사건 17 장9,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서고 495, 목록 154, 사건 240, 장 2.: 임채완, 장우권 외, 재외한인 정보자원 생성과 발전(서울 : 북코리아, 2008), pp.105-106.

1936년 지방인민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87개의 초등학교에 총 19,255명, 준초등학교에 총 5,497명, 중등학교 26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또한 한인 사범대학, 교육전문학교 2개, 농업기술학교 1개, 지방한인 소비에트당원학교, 고등공산주의 농업학교 조선과 극동조선사범학교 등이 있었으며 많은 고려인들이 수학하고 있었다.<sup>43)</sup>

강제이주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7개 지구 주요마을에 초등학교 48개소, 준중등학교 17개, 중등학교 7개소를 포함하여 총 72개소 학교를 개설하였다.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촌지역과 크질오르다 지역에 한인사범학교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세우지도 못하고 극동에서 옮겨온 원동고려사범대학과 소왕령사범학교가 모두 폐쇄되었고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으로 개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고려인집단마을에 있는 고려인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sup>44)</sup>

1942년부터 사할린에 강제 징집된 조선인(노무자)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잔류되었다. 일제식민지 통치가 끝나자 사회주의가 강요되었다. 한인들은 일본인과 떨어져 지내면서 집거촌을 형성하였고, 1946년 9월 1일 사할린 조선학교를 개교하였다. 1945년부터 1964년까지 사할린국립대에는 조선어학과가 있었다. 1954년 9월 1일에는 사할린 교육대학이 설립되어 고려인들에 대한 한글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길을 강요받으면서 1964년 8월 조선사범전문학교 마저도 폐교되었다.<sup>45)</sup>

중국내 조선족학교는 1904년 동광학교, 1906년 용진학교, 서전서숙, 1907년 양정학당에서부터 1945년 춘화학교까지 913개의 학교가 운영되었다. 또한 조선족 서당은 1883년 용정육도구서당, 1887년 요하의 순호서당, 1901년 화룡규암재, 1913년 연길신흥서당에서부터 1935년 왕룡 용수서당까지 158개의 서당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해방후 중국의 소수민족 민족교육장려 정책으로 2002년 이래 약 537개의 조선족학교<sup>46)</sup>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장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중국 조선족의 인구감소로 많은 학교가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 4) 정보자원 생성(형성)과 발전

코리안 디아스포라(고려인, 조선족)는 공통적으로 이주와 정착지에 공동체를 수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고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발전시켜왔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민족사범학교 등 민족교육기관과 신문사, 출판사, 잡

43) 김승화, 재소환인사연구, pp.209-210.; 입체완, 장우권 외, 상계서, p.114.

44)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p.24.; 입체완, 장우권 외, 상계서, pp.119-121.

45) 입체완, 장우권 외, 상계서, pp.136-138.

46) 소학교 327개교, 중등학교 157개교, 기타학교 53개교, 성별로는 연변자치주(209), 흑룡강성(144), 요녕성(90), 길림성(87), 기타(7) 순으로 나타났다. 황유복 편, 중국속의 한글학교, 미·중 한인우호협회, 2002, p.3.; 김현동, 주인영, 재중동포사회 기초자료집 I: 중국 조선족 개황, 재외동포재단, 1999, pp.191-234.; 재외동포재단, 중국조선족현황(2002), p.12.

지사, 극장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초중등학교 및 꼴호즈 청년학교용 교과서를 제정하여 출판하였고, 신문, 잡지, 소식지 등을 발행하였다. 또한 문화와 각종 산업분야의 서적, 조선문목록집, 사회주의 학습 및 당 출판물 등 활발한 출판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 특히 신문이나 잡지, 소식지 등은 고려인 사회를 결속시킨 문화적 원동력이 되었다.<sup>47)</sup> 이들 정보자원들은 조선어와 러시아어 등으로 편찬되었다.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초창기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시키다가 그 이후 강제 폐교되었으며, 신문사, 출판사, 잡지사, 방송국, 극장, 영화사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이들 기관에서는 고려말과 러시아어로 된 신문, 잡지, 텍스트, 문학서적 등이 발행되었으며, 방송, 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도 조선족을 중심으로 서당,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 민족교육기관과 신문사, 출판사, 잡지사, 방송국, 문화예술기관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교과서와 전문도서와 문헌도서, 당 출판물, 신문, 잡지 등이 조선어와 중국어로 발행되고, 조선말방송과 우리민족 예술 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 2. 정보자원관리

### 1) 정보자원 구성과 분포

정보자원 구성은 크게 국가와 시대별로 구분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1860년대 이후 1945년 해방 때까지 조국에서 생활도구와 같이 가져온 가문(家門)에 관련된 족보(族譜)와 기록문서, 19세기 때의 고문서와 20세기 초에 생산된 정보자원, 1937년 강제이주 이전 극동에서 생산된 정보자원,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개혁개방이전까지 연해주(沿海州),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등에서 생산된 정보자원, 1937년 강제이주 이후 현재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생산된 정보자원, 해방 이후 북한에서 가져왔거나 보내온 도서, 개혁개방 이후 한국 가져왔거나 보내온 정보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1860년대 이후 1945년 해방때까지 조국에서 생활도구와 같이 가져온 가문에 관련된 족보와 기록문서, 19세기 때의 고문서와 20세기 초에 생산된 정보자원, 해방이후 조선족자치주, 집거지역(集居地域)과 잡거지역(雜居地域)에서 생산된 정보자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보자원은 다음과 같이 분포되고 있다.

- 텍스트와 기사 위주 생산 :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국 등
- 음향과 영상기록매체 : 라디오, TV 등
- 문화예술 공연 : 극장, 필름(시네마, 영화관), 가무단(歌舞團) 등

47) 김정현, 장우권, 김홍길, 전계서, pp.361-362.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 역사기록문헌 : 도서관, 당안관(檔案館), 문서관(文書館), 기록보존소 등

2) 정보자원 생산기관과 매체별 현황

가. 출판사와 출판물

러시아에서 출판사는 1923-1937년 강제이주 이전에는 원동국영, 원동국립, 외국노동자, 원동당 출판, 연해도위생부(沿海島衛生部), 원동변강직업동맹(遠東邊疆職業同盟), 인민교육, 국립교육, 도서주식회사(圖書株式會社), 연해교육부, 연합출판, 원동변강소비조합동맹, 유즈노사할린, 레쎬페쎬레적십자회, 해삼현 당간부, 태평양직업동맹, 크니스노예젤로, 외국문서적 등으로 이루어졌다. 발행지는 극동지역(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해삼위, 하바로프스크와 유즈노 사할린, 그리고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발행지의 출판사에서는 교육출판물(초중등학생의 고려인 한글교육용 등의 교과서와 사회주의 학습교과서, 사전 등), 지침서(농업, 어업, 축산, 양봉 및 양잠, 광업, 상업, 계획경제 등 직능별 분야에 관한 전문도서), 여성 및 건강, 생활상식 및 문화, 음악 및 문학(희곡집, 문학작품) 등의 도서, 아동도서 등이 출판되었다. 특징으로는 이들 도서들이 대부분 한글문헌이라는 것이다(그림 2, 3, 4 참조).



<그림 2>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한글교육 교재



<그림 3> 1920-1930년대 농업분야 고려인 문헌



〈그림 4〉 1930년대 생활상식분야 고려인 문헌

1937년 강제이주 이후에서 현재까지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등지에서 각종서적과 지침서, 희곡집과 음악관련자료, 아동도서 등이 사할린 서적, 소련과학원 동방도서, 모스크바 과학, 외국문서적(外國文書籍), 모스크바 뿌로그레쓰 등에서 발행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글로 된 정보자원 대부분이 1934년에 창립된 자수시(Zhazushy) 출판사에 발행되었다.<sup>48)</sup> 이외에도 카자흐국영출판사, 알마아따 출판사, 알마아따 작가출판사, 알마아따 오네뜨 출판사, 알마아따 산삼출판사(고려인 운영) 등에서 발행되었다. 출판유형은 주로 시, 소설, 희곡, 종합작품집, 개인과 다수 저작 등이다.

중국내의 조선족 출판은 1945년 이전에는 국내와 중국내의 출판사에서 이루어졌다. 해방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인 1947년에 벌써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 처음으로 연변교육출판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외에 연변인민출판사(1951년), 중앙민족출판사 조선문 편집실(1953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1976년), 요녕민족출판사(1986년), 고차원의 학술저서, 고등학교교재 출판을 담당한 연변대학출판사(1986년)가 운영되었다. 현재 중국 내 조선족 조선문 발행출판사는 7개가 운영되고 있다. 즉 조선문민족출판사로서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민족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등 6개의 출판사와 북경의 외문출판사가 있다.<sup>49)</sup> 이들 출판사에서는 조선문 또는 중문(中文)으로 정치와 역사, 경제와 사회, 문화예술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텍스트와 전문도서(중국조선족민족연구), 문학도서(조선고전문학선집), 아동도서(세계아동문학), 교육용·학습용교과서(한글), 사전(中朝辭典) 등을 발행하고 있다.

#### 나. 신문사와 신문

1908년 2월 26일에 연해주 해삼위에서 러시아 최초 한인 한글신문인 '해조신문(海朝新聞)'이

48) 현재 이 출판사에서 한국어 도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글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으며 출판에 있어서 판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출판사에서 현재까지 순수 한글로 마지막 발행된 도서는 김광현의 작품 『싸(1986)』이다. 그 이후 작가들은 러시아어로 작품을 쓰고 발행하고 있다. 작가 한진은 주로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인(한인)이주(1996)』를 러시아어와 한글 합철로 발행하였다. : 장우권 외, 재외한인의 문헌정보자원 정책과 관리, 북코리아, 2006, p.232.

49) 이명규, 장우권, 전계서, pp.412-418.; 장우권 외, 전계서, pp.53-76.

발행되었다. 이후 '대동공보(1908)', '대양보(1911)', '권업신문(1912)', '자유중(1917)', '선봉(1923) 등 많은 신문과 소식지가 발행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신문은 『선봉(先鋒, 아반가르드(Авангард), Senbon)』<sup>50)</sup>이었다 1937년까지 러시아 고려인 사회에서는 총 18개의 언론기관이 형성되었고, 고려인의 삶의 가치가 기록으로 전해졌다.<sup>51)</sup>

강제이주 이후에는 '선봉'이 1937년 11월 7일 크즐오르다에서 발행하였다. 이후에는 '레닌의 기치'(1938), '레닌기치', '고려일보'(1991)로 제호가 변경하여 개칭되어 발행되고 있다. 현재는 '고려일보', '주간고려일보', '한인일보'(1999), '실크로드'(2004) 등이 발행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신문'(타슈켄트, 1997), '교민일보'(20001)가 발행되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朝鮮勞動者(1949년)', '레닌의 길로'(1961), '새고려신문'(1991)으로 제호가 변경되었으며, '원동(1994)'이 발행되고 있다.<sup>52)</sup>

중국내 조선문 신문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있다.

- 1909-1910 : 월보(月報)(1909)와 대성단보(大成團報)(1910)<sup>53)</sup>
- 3·1운동(1919-1920): 조선독립신문(북간도, 1919), 대한청년보(상해, 1920) 등 24종
- 1921-1945년(해방) : 애국신보(연길, 1921, 연길) 등 110여종
- 1945-1948 : 한민일보(연길, 1945) 등 17종
- 1949-1978(중국공산당창건-문화대혁명) : 동북조선인민보(연길, 1949) 등 15종
- 1979-현재 : 연변일보(연길, 1948), 흑룡강신문(목단강, 1983), 길림신문(장춘, 1985) 등 20여종<sup>54)</sup>

#### 다. 잡지사와의 잡지

1937년 강제이주 이전에 '신중'(1908), '대한인정고보'(1910), '애국훈'(1917?), '말과 칼'(1924), '앞으로'(1933) 등이 발행되었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소련'(1953-1990, 모스크바), '소련여성'(모스크바), '평화와 사회주의 제문제'(1958-1968, 모스크바), '한인회소식'(사할린, 1992), '한인사회'(하바로프스크, 1997) 등이 발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조선문 잡지는 해방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거나 폐간되었다. 잡지의 발간은 연

50) 1923년 3월 1일 '3·1독립만세운동' 제4주년을 기념하여 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초대주필은 이성), 1932년도에는 1만부의 부수를 가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선봉』은 강제이주 바로 전인 1937년 9월까지 발행되었다. 당시 이 신문은 한인 이민의 생활, 관습, 전통, 역사에 관한 정보를 기사화했으며, 전체 극동의 산업, 문화, 사회생활에서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새소식에 관한 정보를 다루었다.

51) 이명규, 임채완 외, 전계서, pp.209-212.; 임채완, 장우권 외, 전계서, pp.253-254.

52) 장우권, 사공복회, 전계서, pp.9-11.

53) 조선족의 첫 신문은 1909년 연길의 국자가에서 발행(월보, 月報), 월보와 대성단보는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역사, 지리, 국내외 시사 및 지방소식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종합지요, 진보지(근대정치를 평론하고 낡은 정치를 비판), 반일 구국사상 및 권선징악, 사회기풍의 개량, 산업의 개발과 교육의 진흥, 공평한 법률과 정치적 개선을 주장; 최상철, 중국조선족 언론사(경남대출판부, 1995), pp.16-18.

54) 이명규, 임채완 외, 전계서, pp.99-100.; 장우권 외, 전계서, pp.76-82.



변을 중심으로 목단강, 하얼빈, 길림, 장춘, 통화, 심양, 북경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잡지의 종류는 크게 당잡지(정치교양지), 학술지, 교양지, 과학기술지, 군사지, 청소년지, 아동지, 여성지, 문학지(순문학지와 문예비평지) 등으로 또는 크게 문예지, 정치지, 전문지, 종합지, 생활지, 인터넷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잡지유형별 잡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조선문 관련 잡지 소년아동(1950), 연변문학(1951) 등 38종이 발행되고 있다.<sup>55)</sup>

<표 4> 조선문 잡지 유형별 잡지 현황

발간시기	잡지유형	잡지명
광복직후와 해방전쟁 이전시기 (1945-1949)	정치지	사회과학강좌, 연변통신, 시사순보, 민족공작통신, 농민의 기쁨 등
	전문지	교육통신
	종합지	신건설, 불꽃, 신청년, 해방, 건설, 대중, 연변문화, 문화 등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시기 (1949.10-1956)	문예화보지	연변문예 <sup>56)</sup> , 아리랑, 장백산, 인민화보, 민족화보 등
	정치지	신농촌, 지부생활보, 지부생활, 당의건설, 학습, 붉은 기 등
	전문지	소학교육, 연변위생, 학습과 연구, 대중과학, 어문학습참고자료, 연변일보통신 등
건국후 7년시기 (1957-1965)	종합지	기적, 장홍, 불꽃, 선행, 쇄물, 번개, 의란, 맹아, 새싹, 천별, 배꽃, 동풍, 심근의 노래, 샘물, 천평별, 구수하별, 구락부의 벗, 쿨통산, 해란강, 부르하통하, 가야하, 송하강, 두만강 등
	문예지	장백산, 송하강, 연출재료, 아리랑, 연변문학 등
	정치지	지부생활, 학습, 붉은 기 등
문학혁명시기 (1966-1975)	전문지	교육통신, 연변위생, 대중과학, 어문학습참고자료 등
	종합지	연변청년, 연변, 동북민병, 민병의 벗 등
	문예지	혁명가곡, 군중예술, 연변문예 등
문학혁명시기 (1966-1975)	정치지	붉은 기, 신길림 등
	전문지	흑룡강일보 통신, 연변방송 등 법률과 생활
	종합지	동북민병 등
새시기 (1976- 현재)	문예지	연변문예, 천지, 군중예술, 해란강, 송하강, 장백산, 예술세계, 도라지, 문학과 예술, 장백산, 세계문학, 아리랑, 진달래, 시내물, 별나라, 북두성, 세계아동문학, 봄노래 등 동북후비군
	전문지	교육통신, 연변교육, 중국 조선족교육, 대중과학, 연변위생, 연변의학, 연변일보통신, 통신원의 벗, 흑룡강일보 통신, 학습과 통신, 흑룡강 신문, 연변송, 조선어문사업통신, 소년과학, 어문연구, 조선어학습과 연구, 일본어학습과 교수, 조선어문, 중국조선어문, 취재와 집필, 신문연구 등
	생활지	동북저널, 문화주간 등
	종합지	홍소병, 소년아동, 청년생활, 은하수, 새마을, 갈매기, 연변여성, 꽃동산, 민족단결 등
	인터넷	인터넷 신문 등

55) 리옥금, 김덕모 편, 중국조선문잡지목록색인 1954-1990(흑룡강출판사, 2002). 이 목록색인을 필자가 다시 재분류하여 '中國朝鮮文類別雜誌名目錄索引'을 완성(1954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 내에서 발행한 모든 조선문잡지 조사); 이명규, 임채완 외, 전계서, pp.115-142.

56) 연변문학은 연변문예(1951), 아리랑(1956), 연변문학(1959), 연변(1961), 연변문예(1974), 천지(1985), 연변문학(1998) 등으로 잡지명이 부침을 거듭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적 변혁에 따라 개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라. 방송국과 방송프로그램

현재 하바로프스크 ‘한국어방송(라디오),’ 사할린 ‘우리말 방송(라디오),’ 카자흐스탄 ‘우리민족 텔레비전방송’(1991, 국가방송, 알마아타), ‘고려인라디오방송’(알마아타)이 개국되어 방송되고 있다. 중국에서 첫 번째 조선어 방송은 1946년 6월 연길신화방송국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조선어방송은 5개가 운영되고 있다: 연변라디오방송(1948, 연변인민방송국), 연변TV방송(1977, 연변TV방송국), 흑룡강 조선어 라디오방송(1964, 흑룡강조선어방송국: Web방송 병행), 중앙인민 라디오방송(북경, 중국인민 방송국조선어방송), 중국국제방송(1950, 북경, 중국국제방송국조선어방송, CRI: Web방송 병행).

#### 마. 문화예술기관과 음악, 연극, 영화

카자흐스탄에는 1932년 원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극장’ 창립 이후 고려극장(1997)으로 개칭하여 현재 500만명 이상의 관객을 유치하였고, 약 250여개의 연극과 음악회 공연, 극작가들에 의해 약 80 여편의 희곡, 약 70 여편의 러시아, 소련, 외국작품들이 번역되어 무대에서 상연되고 있다. 또한 영화로는 카작필름(카자흐스탄 영화제작소), 송시네마(개인영화사) 등에서 주요 기록 문헌을 토대로 기록영화 제작과 발표를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필름’, ‘우즈베크텔레필름’ 등에서 고려인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물과 TV방송용 여상물이 제작되어 방영되었으며, ‘샘물바이얼린’(1992), ‘청춘가무단’(1984, 타슈켄트) 등의 예술단체에서 고려인의 예술문화를 계승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 3. 정보자원과 아카이브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아카이브화하여 보존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이다.

#### 1) 도서관

##### 가. 러시아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에 관련된 정보자원(1945년 이전)은 연해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에서 출판되었다. 이들 정보자원은 현재 러시아국립도서관(전 레닌국립도서관), 러시아국립역사도서관, 외국 문헌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공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sup>57)</sup>은 고려인에 관련된 자료들을 부설 동양학자료센터로 이관하여 보존·열람시키고

57)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도서관. 모스크바 최초의 국립도서관(Russian State Library)은 루미나테스(N.P. Ruminates) 백작이 수집한 러시아와 세계 각국의 서적을 바탕으로 1862년 개관하였다. 이후 상트페테르부

있다.<sup>58)</sup> 여기에는 수 많은 자료들이 있으나 필자들이 발굴한 900여종의 자료들 속에는 독립운동 관련 서적, 연해주 고려인들의 교과서, 고려인의 언론 및 잡지관련서적, 문화와 각종 산업분야의 서적, 사회주의 학습 및 당 출판물, 조선문서목록 등이었다.<sup>59)</sup>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공도서관<sup>60)</sup>에는 한국관련 자료가 가장 많은 도서관으로서 18세기이후 20세기말까지의 한국관련 자료, 한문도서, 고대 역사관련 서적, 한민족 시 문화, 19세기 조선-러시아 관계 서적, 항일독립운동기록 등이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다.<sup>61)</sup>

#### 나. 중국

연변도서관(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sup>62)</sup>)은 많은 조선문헌(단행본, 잡지, 신문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천문대성지집요(天文大成志輯要)』, 『강희자전(康熙字典)』, 『십통(十通)』, 『태평어람(太平御覽)』, 『동주열국지(東周列國志)』, 『논어집주(論語集注)』, 『맹자집주(孟子集注)』, 『대학장구(大學章句)』, 『리조실록(李朝實錄)』, 『민성보(民聲報)』, 『국자가의연혁(局子街的沿革)』, 『훈춘향토지(琿春鄉土地)』, 『두갈재전선(兩條戰線)』, 『발해사연구(渤海史研究)』 등이 있다. 1949년에 설립된 연변대학도서관에는 고서, 신문, 잡지 등을 소장하고 있다.

#### 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뿌시킨도서관<sup>63)</sup>)에는 한국의 고문서<sup>64)</sup> 및 고려인<sup>65)</sup>과 한국관련 서적들

르크로 이전하였다가 소련정부에 의해 1918년 모스크바로 재이전 하였으며, 1924년 레닌국립도서관(Lenin state library of the USSR)으로 중앙도서관이 되었다. 1992년 1월 러시아 대통령 엘친의 포고령에 의해 러시아국립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현재 장서수 약 4억종에 이르며 일일 이용자가 약 1만명이 넘는다. (2006년 2월 20일 오전 11시 도서관방문 관련자료 탐독과 담당자 인터뷰.)

- 58) 폐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을 담당자와 팀장의 허락하에 서고에 직접 들어가 일일이 자료를 찾았다. 열람조건도 너무 까다로워 힘들었다. 많은 자료가 너무나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우리 민족사의 비극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 59) 서적, 연해주 고려인들의 교과서, 고려인의 언론 및 잡지관련서적, 조선문서목록 등이었다. 자세한 자료목록은 김정현, 장우권, 김홍길, “러시아에서의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연구: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집, 제3호(2006), pp.357-380.에서 참조.
- 60) 1814년에 설립된 러시아 최초의 국립도서관. 현재 약 3천5백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
- 61)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글 문헌 중 단행본 형태로 1925년부터 1937년까지 발행된 단행본의 목록은 임채완, 장우권 외, 재외한인정보자원 생성과 변천(서울 : 북코리아, 2008), pp.282-287. 참조
- 62) 1955년에 설립된 중국에서 유일한 조선문헌, 수집, 저장센터로서 각 학과 중외문헌 수집과 국내에서 출판되는 조선문헌(고서적 포함)을 수집하며, 지방문헌을 전면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장서수집정책은 지방 특색을 겸비한 장서체계를 갖추고 있다.
- 63)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은 1910년 12월 31일 Verny 시 Duma에서 도서열람실로 설립되었으며, 1931년 소비에트연방 카자흐주 공공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독립되면서 1991년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어 문화보존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소장 장서수는 550만권이며 50여개의 언어로 씌여진 다수의 희귀도서를 소장하고 있다(슬로베니아와 한국과 관련된 희귀도서 2천여권 소장).
- 64) 도서관 홍보비서에 의하면, 첫 번째의 1937년 강제이주 이전과 이후에 수집하여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약 300권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직접 고문서실을 방문하여 자료목록카드를 일일이 세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0권이였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150권이 더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어볼 때 약 300권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발행된 고문서들이 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을 소장하고 있다. 국립과학도서관에도 약 300권의 조선시대의 고서(光化門古鐘銘 등)와 기록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과 국립과학도서관에는 상당량의 고려인과 한국관련 기록문서와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정리되지 못하고 서고에 방치되어 있다.<sup>66)</sup>

## 2) 기록보존소

### 가. 러시아

러시아 연방에는 약 2,200개 이상의 국가문서보관소와 기록관리센터가 있다. 이 중에서 고려인관련 기록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서보관소는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sup>67)</sup>, 이르쿠츠크주정부국립문서보관소<sup>68)</sup>, 하바로프스크변강국립문서보관소<sup>69)</sup>, 사할린주 국가고문서보관소<sup>70)</sup> 등이 있다. 이외에 많은 연방차원의 기록보존소(러시아 역사기록물 보관센터<sup>71)</sup> 등)와 정부기관 부설문서보관소<sup>72)</sup>에는 고려인과 한국관련 수많은 기록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 나. 중국

중국의 당안관은 조선족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귀중한 문서, 보고서, 서신, 이력서, 사진 등의 중요한 기록물이 각급 당안관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방침에 의해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립운동 관련 사료가 보존되고 있는 당안관<sup>73)</sup>은 북경지역당안관(중앙, 제1역사, 북경시, 중국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 요녕성지역(요녕성, 신빈만족자치현), 길림성지역(길림성, 연변자치주, 통화현, 집안현, 장백현), 흑룡강성지역(흑룡강성, 목릉현/목단강), 상해지역(상해시, 서가화구), 남경지역(제2역사, 강소성, 남경시), 중경지역(중경시), 서안지역(협서성), 장사·계동·산춘지역, 기타지역 당안관 등이다.

考, Munhon bigo』 50권, 『황화집(皇華集)』, 『조선역사(朝鮮歷史)』 8권, 『조선왕조와 조선무인(武臣)에 관한 역사』외 기타 조선시대의 족보 등이 있다. : 2005년 2월 18일, 현지방문과 도서관 홍보비서와의 인터뷰.

65) 1937년 강제이주 이전과 이후 수집된 고문서, 1937년 강제이주 이후 크즐오르다와 까잘린스크의 한인학교와 한인사범대학의 폐쇄령과 모든 한인관련 서적판매 금지령, 그리고 1939년 소각령에 의해 유실도중 건져낸 일부도서와 문서.

66) 필자의 2005년 2월 방문시 확인.

67) 조선인(한인) 이주자 관련기록, 조선인 분산이주, 시베리아지역 한인이주기록, 한인집단농장기록, 한인농업활동, 극동혁명위원회 기록

68) 1920-30년대 한인 이주자기록, 항일투쟁기록, 한인의병부대, 의용군활동, 한인소비에트문화활동, 코민테른관련기록, 교육 소비에트 당활동 등

69) 한글교육실태, 토지분배, 이주기록, 한인소비에트기록, 재러한인 국적취득활동, 교육기록, 조선인학교설립, 한글문학작품, 의료기록 등

70) 사할린한인 활동자료, 1930-40년대 남사할린지역 사진자료와 각종 문서자료 등

71) 19세기 조선관계 문헌기록, 한국전쟁기록, 내무성전쟁포로국 일본군포로 관련 문서 등

72) 재정러시아대내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외무성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등

73) 이명규, 임채완 외, 전계서, pp.178-195.

#### 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초기 이주에서부터 정착관련 문서들과, 고려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주요 기록문서들이 카자흐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알마타, 잠불, 카라간, 우슈토베, 크즐오르다 등의 지역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사진필름기록보존소에 많은 텍스트, 보고서, 영상, 사진 등의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에 관련된 주요한 기록문헌자료<sup>74)</sup>는 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국립중앙기록보존소, 내무부 기록보존소, 대통령직속기록보존소, 국정원 기록보존소, 외무부 산하 기록보존소, 도서관 산하 기록보존소, 과학기술기록보존소, 티쉬켄트와 카라칼팍스탄지역 기록보존소 등이 있다.<sup>75)</sup>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이들이 정착하면서 생성된 정보자원의 관리와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보고, 코리아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과 아카이브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시기는 1860년대부터 1945년까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주 유형은 주로 농업이민, 망명이민, 노동이민이었다.

2)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의 언어(러시아어, 중국어)<sup>76)</sup>는 물론 한글(조선어, 고려말 등) 등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3)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러시아 연해주(극동지방), 중국, 중앙아시아 모두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범학교 등)을 설립운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민족교육은 모두 강제로 금지되었다.

4)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정보자원 생산기관인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방송국, 문화예술기관(연극, 극장, 영화관 등) 등을 운영하면서 이주와 정착에서 기록된 정보자원으로서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도서매체와 영화, 필름, 레코드나 테이프 등의 비도서매체도 활발하게 생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5)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정보자원과 아카이브는 러시아국립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크공공도서관,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우즈베키스탄국립도서관 등과 러시아 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중국의 당안관, 국립중앙기록보존소(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소

74) 강제이주와 관련된 기록문서, 고려인 생활사와 관련된 기록문서 등

75) 장우권, 사공복회, 전계서, pp.309-312.

76) 초기에 극동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러시아와 조선어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나,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 이후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조선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병행하여 중국어를 사용하였다.

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과 아카이브가 접근불가이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심각하게 민족문화유산이 망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 즉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 국가 기관과 연구소 등의 담당자 인터뷰와 세미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국가들(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등)과의 상호조사와 교류 또는 협력에 대한 정치적인 협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산하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과 아카이브 기구인 가칭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 센터,' '코리안 디아스포라 아카이브원' 등의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계승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회와 협회, 학부 학과와 대학원이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내의 대학원 디아스포라학과와 한산 문화연구원, 그리고 세계디아스포라학회, 재외한인학회 등.

4)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국가차원의 운영, 연구와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망실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영기 외. 문화시대의 디지털 아카이브. 전남대 출판부, 2005.
- 김정현, 장우권, 김홍길. "러시아에서의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pp.357-379.
-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 러시아극동의 한인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문서와 자료, 블라디보스톡, 2001.
- 김현동, 주인영. 재중동포사회 기초자료집 I: 중국 조선족 개황. 재외동포재단, 1999.
- 리옥금, 김덕모 편. 중국조선문집지목록색인 1954-1990. 중국 목단강 : 흑룡강출판사, 2002.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2010.
- 사공복희, 장우권. "재중 조선족 정보자원 생산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1호 (2004. 3), p.179.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 및 현황(2011).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 집문당, 1998.
- 이명규 외. 재외한인 문헌정보자원과 실제. 서울 : 집문당, 2005.
- 이명규, 장우권. “중국 조선족 한글정보자원 생산과 출판물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pp.401-422.
- 이미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예술·사랑·국가.”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2010), pp.97-127.
- 임채완 외. 재외한인 정보자원 생성과 발전. 서울 : 북코리아, 2008.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제4호(2003), pp.101-142.
- 장우권. “디지털정보자원관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2012. 11), pp.7-27.
- 장우권, 사공복희.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글정보자원관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pp.291-315.
- 장우권 외. 재외한인의 문헌정보자원 정책과 관리. 서울 : 북코리아, 2006.
- 전형권, 이소영. “사할린 한인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이주루트 연구,” OUGHY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Vol.27, No.1(Spring 2012), pp.135-184.
- 정성호.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한국인구학, 제37권, 제3호(2008), pp.107-130.
- 최정태. 기록학개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1.
-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10.
- 한국기록학회 편.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2008.
- 한국전산원.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로드맵 수립(2001. 11).
- 황유복 편. 중국속의 한글학교. 미·중 한인우호협회, 2002.
- Bergsten, C. Fred, 최인범 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세계경제(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서울 : 국제경제연구소, 2003.
- ISO, International Standard As 15489.1: 2001, 3.15, 7.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 Safran, William.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s*, Vol.1, No.1(1991), pp.83-99.
- Ф, Бугай Н. К вопросу о депортации народов в 30-40-х годах //История СССР, No. 6, 1989, С. 135; Правда, 24 ноября.

